



세계 해운전문인력 양성의 메카-세계해사대학

유엔(UN)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설립한 세계해사대학(WMU : World Maritime University)이 명실상부한 세계 해운전문인력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2년제 석사과정의 학생 70~80%가 세계 각국의 정부 해운관련부처의 관료이며, 나머지는 해운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들이다. 지난 1983년 이후 2006년 까지 140여 국가 출신 2000여 명의 졸업생 배출한 세계해사대학의 전모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해사대학을 졸업한 해운 인사들이 3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졸업생들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은 차관을 비롯하여 이재균 정책홍보관리실장, 청와대 문해남 인사비서관, IMO 민경래 국장 등이 이 대학을 졸업했다. 또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와 조봉기 차장이 이 대학을 나왔으며, 부산항만공사 양원 운영사업본부장과 김천규 전 현대상선 상무 등도 이 대학을 졸업했다.

▶ WMU 설립취지

IIMO는 각종 IMO 협약이 각 회원국, 특히 개도국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술 협력사업 전개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에서 활동할 해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1983년에 스웨덴 말모시에 WMU를 설립 하였다.

▶ WMU 조직 및 학사운영

IMO의 E. Mitropoulos(그리스) 사무총장이 당연직 총장을 맡고 K. Laubstein(캐나다) 학장 및 S. Ma(중국) 부학장과 10여명의 교수 및 7-8명의 강사로 구성된 교수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교수 출신국은 영국, 미국, 인도,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이란, 중국 등이며, 이외에, 다수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과정을 보면, 연안통합관리, 해사행정, 환경안전, 해운경영, 항만경영, 해기교육 등 6개의 과정을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공 명칭을 변경하거나 같은 골격이다. 교육



WMU K. Laubstein 학장

과정 수료 후 이학석사(MSc) 학위가 수여된다.

▶ WMU 학생현황

이 대학은 지난 1983년 설립된 이후 2006년까지 약 140여개국 출신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의 대륙별 분포도를 보면, 아시아 36%, 아프리카 32%, 중남미 15%, 중동 12%, 구주 및 북미 5% 등이며, 약 70%가 출신국 공무원이다. 그리고 재학생 평균연령은 35세 정도이다.

우리나라 출신 졸업생으로는 현 이 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해양부 공무원과 한국선주협회, 한국선급, 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오염방재조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항만공사, 선사 등 전현직 임직원이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2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다.

▶ WMU 학교시설

캠퍼스는 해안에 인접해 있는 구 선원양성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다. 5층짜리 아담한 건물과 작은 마당 및 주차장으로 이루어진 캠퍼스는 교직원, 학생을 합해 총 250명이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건물 3층에 있는 도서관은 전체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거의 모든 해사관련 도서 및 정기 간행물을 비치하고 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도보로 약 40분 떨어진 주택가에 기숙사를 두고 있는데, 이 기숙사는 과거 스웨덴 조선산업이 융성하던 시기에 조선소 근로자용 숙소로 상용됐던 것이다. 현재 재학생의 약 90%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기숙사에서는 조식만을 제공, 중식이나 석식은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편안할 뿐만 아니라, 자연히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다. 가족을 동반한 학생의 경우 자비로 월세 아파트를 임대하여 생활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학측은 △학교 인근의 체육시설을 무료 이용권 제공 △ 시내버스 무료승차권 제공 △ 시립도서관 이용권 제공 △ 동반자녀(만 4세부터 16세까지)에 대한 국제학교 교육비 면제 △ 재학생에 대한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시당국과 협조하여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학사일정 및 교육내용

매년 1월 중순부터 다음 해 10월 중순까지 1년 10개월을 총 일정으로 한다. 주5일, 1일 3-4강 (1강 90분)으로 구성되며, 10강을 수강해야 1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2005-06년도 학사일정을 보면, 2005년의 경우 1월17일-5월13일(17주) English Study Skill Program(ESSP), 5월17일-7월29일(11주) 1학기, 8월8일-12월9일(17주) 2학기로 분류된다. 2006년의 경우는 1월16일-5월19일(18주) 3학기, 6월5일-10월6일(18주) 4학기를 끝낸 후 10월8일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각 일정별 교육내용을 보면, ESSP(17주)의 경우 영어수강에 대비하여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기간이다. 따라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영어학습 이외에 컴퓨터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 및 문헌검색 방법 등 학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한다.

특히, 표절로 의심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논문이나 과제물 제출시 표절의 의심이 있는 경우 엄중대처한다. 표절 또는 표절의혹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 기간 이후에도 재학기간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과제물에서 표절 의심을 받는 경우 재시험을 치르거나 심한 경우 퇴교조치된다.

실제로 2005-06년도 학사일정에서 일본 해기교육기관의 한직원은 ESSP 과정만 수료한 후 귀국한 사례가 있었다.

제1학기(11주)에는 과정구분 없이 전학생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과목은 경제학(2학점), 법학개론(2학점), 경영학(1학점), 조사연구방법론(4학점)과 선박개론(1학점)이다.

특히, 인도 출신 캐나다 변호사인 Proshanto Mukherjee 교수의 법학개론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명강의로 유명하다.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하나 광범위한 많은 주제를 단시간 내에 강의하는 관계로 학생들이 상당히 힘겨워한다는 것이다.

제2학기(17주)에는 전 학생을 전공과정별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강의한다. 한 그룹은 연안관리, 환경안전, 해상행정, 해기교육 과정의 학생으로 구성하고, 다른 그

룹은 해운경영 및 항만경영 과정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해운경영, 항만경영 과정의 수강과목은 재무관리(4학점), 해운항만 경영론(4학점), 해상법(2학점), 물류론(2학점)이며, 수강과목별로 필기시험 혹은 과제물을 제출하여 평가 받는다. 1, 2학기 총평점이 2.67(B-)이하인 경우 퇴교조치되며, 매년 7-8명의 학생이 2학기를 마치고 퇴교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학기(18주)에는 보다 실무적인 과목으로 구성되며, 해운실무, 용선, 마케팅, 경영전략 등 총 12학점을 수강한다. 특히 3학기 중에는 오슬로, 런던, 아테네, 함부르크 등 현지견학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 있다. 현지 견학 방문지로는 해운관청, 선사, 항만운영사, 선주협회, 보험회사, 해상협의회 등 각종 해운관련 업체가 포함된다.

제4학기(18주)에는 전공과정에 불문하고 2학점 짜리 40여 선택과목 중 8과목을 선택 수강한다. 논문작성도 10학점 선택과목 중 하나이나 논문 심사 인력 부족으로 총100명중 15명 정도만 논문작성을 선택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논문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학생들이 자국의 현지 연구논문 등을 표절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취해진 정책이라 한다.

▶ 학사일정 전반에 대한 평가

대학측은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일정과 다소 긴장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토론식 또는 강의식 교육을 병행하나 강의식 교육에 가까운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강의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충실(결강 사례는 극히 이례적임)한 반면, 대학측이 제시하는 영역 이외의 개인 관심분야에 대한 학생간의 자발적인 토의 내지는 연구는 위축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학생 과반수에 달하는 30대 중후반의 경력 공무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나 각자가 속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관심분야에, 또는 여러나라 출신의 학생간 교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점에 다소 불만이다.

요컨대, 학사내용과 운영측면에서 볼 때,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과정이다. 교과내용은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데 치중하며 암기식이 아닌 창발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현실에 맞게 활용하는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생활여건



WMU의 소재지인 스웨덴 말모(Malm?)시의 기후는 북위 56도의 고위도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해가 길고(새벽 4시부터 밤 11시 까지) 겨울에는 밤이 긴(저녁 5시부터 아침 8시까지)반면, 여름 낮 기온이 영상 24도 안팎이고 겨울에도 영하 2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에는 해가 짧고 습도가 높아 스산한 한기가 지속된다. 하지만 1년 연중을 감안할 때, 맑고 화창한 날씨가 많고, 폭우나 강풍 등 악천후가 거의 없는 천혜의 기후로 생활학 편리하다.

남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스웨덴은 총인구가 900만에 불과하며 말모시는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 3대 도시이자 남부 고창지대인 스코네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이나 인구는 27만명에 불과한 미니 도시이다.

특히, 말모시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과 오래 순드(Øresund) 해협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으며, 두 도시는 2000년에 개통한 다리 및 해저터널로 연결되어 있고 40분이면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입출국시 모든 말모 시민들은 코펜하겐 공항을 이용한다. 항만 및 기차역을 중심으로 아담한 시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외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다.

물가는 전반적으로는 한국에 비해 약 2-3 수준이나 품목별로 편차가 크다. 육고기, 감자, 쌀 등 일부 농수산물은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나, 특히 의료, 외식, 교통, 이발, 미용, 각종 수리 등 인건비를 요하는 서비스 상품은 매우 고가이다.

주거문제의 경우 4인 가족, 약25평 아파트 월세가 100-150만원 수준이며 전기, 전화 비 등이 별도로 부과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가구나 필수 생활용품이 함께 임대되어 편리하다.

동반자녀 교육문제와 관련, 4세부터 16세까지는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학교에 무상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4세 미만 유아의 경우는 보육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

언어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스웨덴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편이므로 의사소통에는 큰 불편이 없으나, 문자는 거의 100% 스웨덴어만 사용하고 있어 크게 불편하다.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WMU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큰 문제가 없으나, 동반가족의 경우는 전적으로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며 매우 비싼 편이다.

한편, 말모시에는 한국 교포가 거의 없어 고춧가루나 각종 장류 등 필수적인 한국음식 재료를 살 수 없으며, 한국에서 우송해야 한다.